

VIPP 와 MUJI에서 선보이는 PreFab House

PreFab House proposed by VIPP and MUJI

글. 이지현 Lee, Jihyun
jihyun.lee815@gmail.com



그림 1) VIPP의 프리팹 하우스



그림 2) MUJI의 프리팹 하우스

이번 호에서는 덴마크의 제품 디자인 회사로 유명한 VIPP와 패션 및 리빙 스타일의 브랜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 회사 MUJI가 선보이는 작은 프리팹 하우스-PREFAB HOUSE-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리팹 하우스란 건축물 대부분의 구조 및 마감이 공장에서 제작 및 조립되어 현장에서는 기초 공사만 하여 완성하는 방식의 집으로써 최근 디자이너 및 건축사들이 다양한 재료와 조립 방식의 발전에 힘입어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다.

먼저 VIPP의 프리팹 하우스는 셸터-SHELTER, 이하 *쉘터*-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55㎡의 철판으로 된 오브제와 같은 건축물은 유리 파사드를 통해 하늘과 호수를 담은 풍경을 반사하며 아름다운 자연 위에 살며시 올려져 있다. 특히 ‘파노라마’ 슬라이딩 창호-스위스에서 개발된 창호로써 얇은 프레임 두께와 디테일로 이름 나있다.-는 외부와 내부의 경계면을 얇은 선으로 프레임화하고 외부의 풍경을 내부로 끌고 들어오며 자연을 의도적으로 하나의 풍경화로 만들었다.

‘쉘터’ 프로젝트는 그 이름답게 도시인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단순한 공간에 최소한의 기본 거주 기능만을 제공해 집을 완성한다는 데 의의를 두려 했다. 덴마크의 저명한 산업 제품 디자인 회사의 전통 안에서 금속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지붕의 질감 및 형태는 자연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명쾌한 직선으로 미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작고 밀집된 공간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3) VIPP의 프리팹 하우스 외관



그림 4) VIPP 프리팹 하우스의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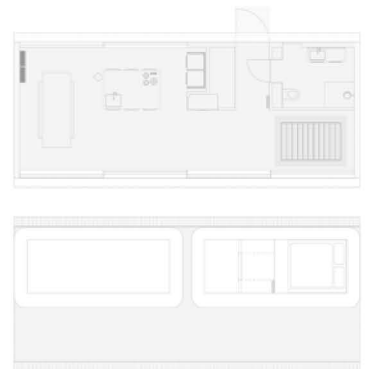


그림 5) VIPP 프리팹 하우스의 평면도

VIPP 수석 디자이너인 모르텐 보 젠슨-Morten Bo Jensen-의 말에 따르면 이 ‘쉼터’의 산업적 목표는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조해서 ‘제품’처럼 사용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말한다. 건축은 언제나 땅, 도시의 문맥 또는 그 곳의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주변환경과 함께 성립되는 반면, ‘쉼터’는 모든 것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어디든 가져다 놓기만 하면 거주할 수 있는 탈문맥적 기계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이너는 비행기 또는 선박 같이 부피가 크면서 이동이 가능한 아주 복잡한 ‘제품’ 디자인에서 형태를 구상했다고 한다. 이 작은 쉼터 안 공간의 내부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물체와 제품은 매우 높은 제품 디자인 품질을 자랑하는 VIPP의 제품군으로 채워졌다. 아주 적은 가

구만이 있기 때문에 이들 가구 하나 하나의 재료나 디테일이 최소한의 내부마감-회색 계열의 철판과 콘크리트-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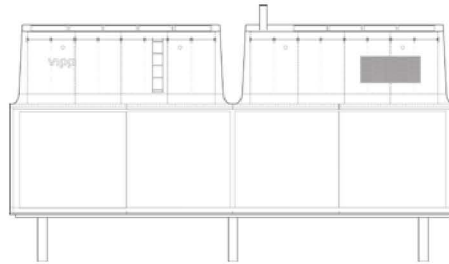


그림 6) VIPP 프리캵 하우스의 입면도



그림 7) VIPP 프리캵 하우스의 내부모습 1



그림 8) VIPP 프리캵 하우스의 내부모습 2



그림 9) VIPP 프리팹 하우스의 내부모습 3



그림 10) VIPP 프리팹 하우스의 내부모습 4

또한 최소한의 건축을 만들기 위해 자연적 환경 효과를 최대화하고 설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했다. 겨울에는 열의 균등 분배를 위해 쉼터의 중앙에 위치한 벽난로를 데워서 전체적으로 열이 순환하게 했고, 자연환기가 필요 시에는 슬라이딩 창을 약간 열어놓으면 된다. 건물 외장재를 검은 색으로 한 것도 햇빛을 흡수해 연료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름철에는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낙엽 활엽수의 그림자 때문에 시원하고 창으로 맞바람을 치게 해서 자연환기를 유도시킨다.

55㎡의 VIPP 프리팹 하우스와 대비되는 MUJI의 프리팹 하우스는 ‘제품’ 개념이라는 것은 VIPP와 비슷하지만 일본의 오랜 전통과 자신들의 무지 브랜드 콘셉트에 맞도록 스케일을 한 층 축소해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실내는 9㎡로 작지만 3~4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입구의 커다란 창도 VIPP의 쉼터처럼 슬라이딩 창호로 내부의 프레임 안으로 외부의 풍경이 보인다. 다른 작은 창문을 통해 빛과 바람이 들어 자연환기가 잘 되도록 유도했다.

VIPP 쉼터 내부가 덴마크를 대표하는 단순하지만 정교하고 섬세하게 제작된 가구들로 채워진 것처럼 MUJI의 오두막에 사용된 내·외부 마감 재료 및 가구는 모두 일본산이다.

외부 마감재는 일본 전통 산업의 선박의 재료를 만들던 방식을 빌어 불에 태우고 오일스테인을 바른 하드우드로서 방부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그림 11) MUJ사의 프리랩 하우스



그림 12) MUJ사의 프리랩 하우스

매트 기초 위에 올려진 가벼운 구조, 몰탈 바닥 마감까지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유지, 관리가 편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해 제품으로써의 '일반적' 성격을 가지게 했다. 물론 매트기초 이외는 모두 공장에서 제작하는 프리패브리케이션-*Prefabrication*- 제조방식도 이 성격에 한 몫 할 것이다.

마지막 가구 디테일까지 세심히 설계된 이 오브제 건축에 대해 고객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은 '어디에 놓을 것인가'이다. 이들은 건축이면서 언제 어디서나 놓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며, 나 자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풀려있는 창을 통해 자연환경을 들일 수도 있으니,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하는 현대 사회, 즉 액체 사회-*liquid society*-를 대변하는 건축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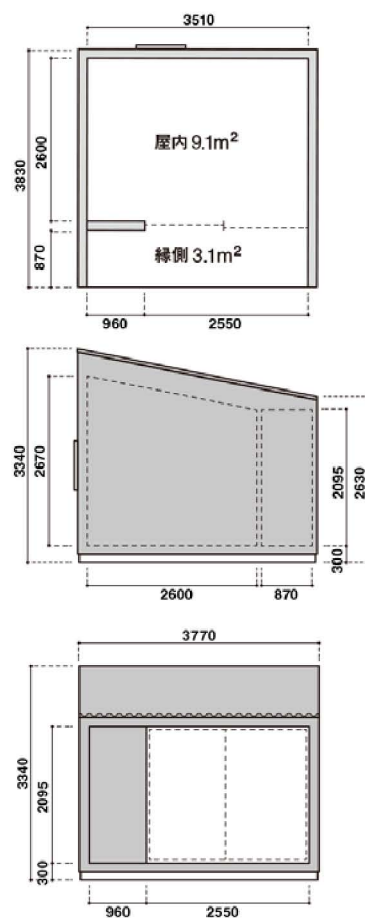


그림 13) MUJ사의 프리패 하우스 평면도, 입면도

출처

Vipp Prefab House : <https://www.archdaily.com/>

MUJI House : <https://www.muji.net/store/>